

간호학과 주점 티켓 강매 논란

선 입금 후 티켓 나눠준 후 판매해... 환불은 불가
학생회장 “정당한 절차 밟았다·논란 이유 모르겠다”

아라대동제 기간의 일일주점 운영과 관련해 간호학과와 주점 티켓 강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의 A씨는 제주대신문 제보를 통해 “간호학과에서 주점 티켓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학년별로 티켓 대금을 선 입금 받은 후 학생들에게 티켓을 팔게 했다”며 “티켓을 못 팔았을 경우 환불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티켓 강매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취재결과 간호학과는 아라대동제 때 일일주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티켓을 판매했다.

티켓의 판매 방식은 학년별로 티켓의 판매개수를 정해 학년별 단체 카카오톡에 계좌번호를 올린 후 선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 입금 확인 후에는 학년별로 구매한 금액만큼 티켓을 나눠주었다. 만약 학

생들이 자신이 구매한 티켓을 다 팔지 못했을 경우에도 선입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티켓 한 장의 가격은 만원으로, 1학년은 5장, 2학년은 3장, 3학년은 1장의 양을 구매하게 했다. 이렇게 판매된 금액으로 주점을 준비하고 운영했다.

제보자 A씨는 “학교 생활을 가장 적게한 1학년에게 가장 많은 수의 티켓을 팔아오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결국 티켓을 팔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돈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결국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호학과와 티켓 강매는 몇 년 전부터 반복돼 내려오는 상황이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대학 졸업 후 대부분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간호학과와 특성상 불합리한 관행에도 내부고발이 힘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

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고아람(간호학과 3)학생회장은 “대동제에서 진행되는 주점 운영방식은 학기 초에 진행된 정기총회를 통해 학생들의 9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결정된 사항이다”며 “과거에는 학생들의 인준을 받지 않고 주점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불만사항을 우려해 인준을 받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주점과 달리 간호학과 주점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 기부를 목적으로 한 행사”라며 “주점을 타 학과에 비해 크게 준비하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진행을 했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학생들에게 주점을 하는 이유와 선 입금에 대한 이유, 발생하는 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총회라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진행을 했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5월 28일 제주시청 Indie in Jeju소극장에서 제주대 동아리 ‘블랙다이아몬드’ 소속 김민후(체육학과 3)학생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달라지지 않은 정문 교통상황

회차지 공사에도 버스들은 여전히 도로 위 불법주차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무원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정문에서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제주대 정문은 왕복 4차선으로 대학 출입, 첨단산업단지로 향하는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출·퇴근일에 차량들의 왕래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불법주차, 버스의 시야가림, 과속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도로를 건너는 데는 많은 위협이 따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고 적혀 있지만 정문 앞 차량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버스회차지의 공간이 확대됐지만 버스들은 회차지에 공간이 있음에도 도로 옆 화장실에 주차를 하거나 한쪽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제주대신문(928호-보행자 사고 위험 높음) 정문 앞 횡단보도, 932호- ‘일촉즉발’ 정문 버스 정류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인터뷰에서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버스회사에 경고를 주고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차를 세우지 않고 불법유턴을 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 됐으니 버스회사 측에 민원을 알리도록 하겠다”며 “또한 버스회사측이 이번 문제에 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단에 주차관리·단속 등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달린 정문 교통문제에 대해 행정당국이 이번에도 말뿐이 아닌 행정처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건 기자



버스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정문 앞 교통이 혼잡한 가운데 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번 학기는 제955호 신문으로 종간됩니다

다음호 제주대신문(후기 학위수여식 특집호)는 8월 25일 (목) 자로 발행됩니다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 예정

제주대 내에 설치된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이 6월 22일 오후 3시 본관 3층 회의실과 센터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과 허향진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센터는 제주지역 ODA(공적개발원조)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제주대와 제주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정부의 ODA 확대 정책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육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지역에도 ODA 시설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센터는 앞으로 제주지역 주민, 학생, NGO, 기업 등을 대상으로 ODA 교육 기회 제공, 신규 ODA 사업 발굴, 사업 수행 컨설팅 등 지역 ODA 사업 지원, ODA 사업 협력 파트너 네트워크 강화, WPK 귀국 봉사단원 지역 내 활동 강화, 제주 지역 ODA 관련 모니터링과 평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초대 센터장은 KOICA 이사, 네팔

대사, 필리핀 공사, UNESCO 아·태 과정을 역임한 홍승목 전 대사가 선임됐다.

김해건 기자

취업 위한 무료강좌 OPEN

제주대 총학생회, 취업전략본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LINC사업단과 ㈜대학연합창직캠퍼스사업단이 ‘제주대학교 창직캠퍼스(온라인강의)’ 무료강좌 사이트를 개설했다.

제주대 학생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온라인 강좌로 공무원·취업·직무·NCS·외국어 등 각종 국가·민간 자격증 등 맞춤형 강좌를 탑재했다.

홍희숙 취업전략본부장은 “관련 강좌의 업데이트를 통해 제주대 학생들이 유망 자격증 교육 및 창의적인 직무 자격증 강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이래 기자

학기말 강의 평가 실시

2016년 1학기 강의평가가 6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4주간 실시된다.

강의평가는 수강 교과목에 대한 강의방법·내용 등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으로, 담당교수가 확인해 향후 수업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교과목은 2016년 1학기 학부에 개설된 전 강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의 교과목은 일반선택 교과목 중 매 시간 강사가 바뀌거나 수업 진행이 대학 내에서 이뤄지지 않는 S/U교과목이다. 또한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강좌, 공동강의 강좌 중 참여교수가 4인 이상인 강좌 등이다.

대상자는 교류수학생 등을 포함한 1학기 교과목 수강학생 전체이다. 평가 방법은 하영 Dreamy로 로그인한 후 ‘강의평가’ 메뉴를 클릭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본 후 강의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평가는 자신이 1학기 때 들었던 과목의 수만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강의평가 실시기간에 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하영Dreamy에서 성적을 조회할 수 없게 된다.

김정희 기자

작은 정성과 참여가 제주대학교의 저력을 크게 키웁니다

ARS(060)는 한통화에 3000원이 적립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대학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금액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RS제대사랑 수신기금

발전기금에 관심은 있으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화한 통화로도 기금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6 0 - 7 0 0 - 1 0 2 0

(재) 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RS(060-700-1020)은 한 통화 당 3,000원 금액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자동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우리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 방법 : 전화정보교환서비스(ARS 060-700)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보이용료 및 수납대행료 납부

· 번호 : 060-700-1020(대학 신주소 제주대학로 102표기)

· 후원금 : 1통화당 3,000원

· 안내멘트 :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삐소리가 난 후 부터는 전화사용료 외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후원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시오. 삐~~ 보내주신 후원금은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라대동제를 바라본 다인다각(多人多角)의 시선

대학 축제를 넘어 도민의 축제였던 2016 아라대동제

총학생회 측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현장 만족도도 높아”

학생들 “프로그램 만족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교수 “대학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야”

제주대에서 열리는 아라대동제는 더 이상 재학생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대운동장에서의 진행,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주도내의 가장 큰 축제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동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축제를 준비·기획했던 사람들은 물론, 축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담아왔다.



김태준(정치외교학과 2)·고태훈(정치외교학과 3)학생이 장터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관람형 축제에서 체험형 축제로

아라대동제는 3일이었지만 준비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축제가 열리기 전부터 오랜시간 기획을 했고, 4일 전인 5월 20일인 금요일부터 그동안 대동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다.



‘내일로’ 총학생회 강민우(환경공학과 4) 회장에게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의도를 물었다. 강 회장은 “이번 축제의 테마를 ‘즐거고 놀 수 있는 문화’로 잡고 기획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버블사커와 서바이벌 등 직접 참여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참여한 학생들의 현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교내 교통에 관해서는 “그 동안 주도로를 점령하고 있던 노점상 문제도 대학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냈지만 빈 주도로에 일반 차량들의 불법 주차 문제가 새로 생겼다. 가이드라인을 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인 기획의도를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원 통제·쓰레기 문제 힘들어
축제기간 동안 학생들의 질서와 안

전 등을 위해

봉사했던 ‘내일로’ 총학생회 소속 김서화(관광경영학과 3)씨는 “축제를 진행하고 보조하는 인원이 적은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학생회 인원에 비해 축제 방문객 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인원 통제부분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제 장소 안에서 휴연을 하는 분들을 통제하는 것 등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서화 학생

이어 “날씨는 곧 방문객 수와 직결되고 방문객은 곧 행사의 흥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축제 첫 날에 비가 왔던 게 좀 아쉬웠다. 축제를 진행하면서 일반 학우 분들의 바람들을 모두 실현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학우분들이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예전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큰 행사일수록 시민의식이 중요해

그렇다면 대 학생이 돼 처음 대동제에 참여해본 신입생의 시선은 어떨까.

김은아(회계학과 1)씨는 “축제답게 먹거리가 되게 많아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액세서리 등의 가게가 많이 없



김은아 학생

었다. 먹는 것에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어 “길가에 쓰레기통이 많이 배치돼 있는 걸 보고 총학생회 측에서 준비와 배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지 않아 시민의식이 부족했다고 느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교통체증 해소가 시급

우리대학이 아닌 타 대학 학생들이 바라본 축제는 어떤 모습일까.



고소연 학생

축제에 온 이유에 대해 고소연(한라대 임상병리과 1)씨는 “체험이나 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술을 즐기러 왔다”고 말했다. 처음 축제에 참여한 그는 “축제에서 만날 기회가 없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하지만 사람은 많고 도로는 좁은 등 교통상황이 너무 안좋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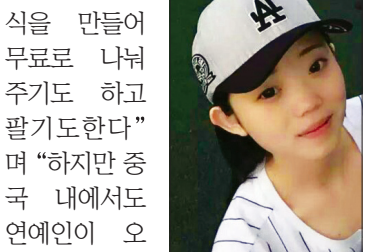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열정이 대단한 나라

유학생들은 축제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

중국에서 온 사가(관광경영학과 3)씨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축제에서는 음



사가 학생

식을 만들어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며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연예인이 오는 학교는 유명한 학교 뿐이다”며 대학축제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한 “축제에 온 가수들은 잘 모르지만 노래를 잘 불렀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분위기가 뜨거웠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며 “비도 오고 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동제를 참가하고 싶다는 열정을 느꼈다”며 “축제에 대한 열정이 식을 줄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열정과 패기 담긴 축제 돼야

학교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대동제를 본 교수의 시선은 어떨까.



윤용택 교수

윤용택(철학과) 교수는 “먹고 마시는 축제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축제로 변모하려는 노력하고 있는 지금, 학생이 주체적으로 대학의 문화를 이끌어 가야할 때이다”며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제의 큰 테마를 대학의 내부를 넘어 대학 밖의 큰 이슈들로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학생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소모적인 축제보다 고민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변화의 주도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과 패기로 가득찬 아라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돼야

제주대학의 축제에서 학내구성원을 포함해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물론 술 문화, 연예인 공연관람 문화에서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노력해 소수를 위한 축제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의 축제로 거듭날기 기대한다.

김지영·김혜진 기자

‘3일쯤은 괜찮아’ 이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016년 아라대동제 ‘3일쯤은 괜찮아’에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떤 이색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함께 알아보자

◇‘견우는 어디에?’ ‘유시진 대위님 어디 계세요?’

솔로 대학생들을 위해 기획한 커플 메이킹 부스 프로그램인 ‘SOLO몬의 선택’이 큰 인기를 끌었다.

프로그램은 대동제 기간 내 춘향이와 이몽룡, 견우와 직녀처럼 고전동화 테마의 연인들이나 나정과 썰레기, 유시진과 강도연 커플 등 드라마의 공식커플의 이름이 쓰여 있는 퍼즐 목걸이를 걸고 자신의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부스를 운영한 이미림(경영정보학과 3) 씨는 “사실 부스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다”며 “여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동제 첫날 목걸이가 5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말했다. 짝을 찾은 그룹은 영화 관람권이나 연극 티켓 등이 상품으로 제공됐다. 후일담에 따르면 “직녀분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며, 내일로 총학생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민수(지구해양학과 4) 총학생회 기획국장은 “작년에 대운동장이 무대의 공간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을 봤다”며 “올해는 대운동장이 무대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로 발전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내일로 총학생회는 ‘삼일 내내 참여해도 괜찮아’라는 프로그램 슬로건으로 내 걸고 제주도의 송중기를 찾는 서바이벌 게임 ‘총알 날고 탕탕탕’, 전광판을 통해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보이니’, 버블슈트를 입고 축구를 하는 ‘버블사커’ 등 각각각색의 매력을 지닌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했다.

◇인도의 김치전 ‘Tharai adai’ 먹으러 오세요

대동제 기간 중 진행됐던 많은 푸드코너중 한라터에서 진행됐던



대운동장 옆에 마련된 장터에서 학생들이 축제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위). 유학을 온 학생들이 대동제 때 본토의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중간). 대운동장에서 펼쳐진 ‘버블사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아래).

외국인 유학생회의 푸드코너가 이색적인 향과 맛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6 JNU international students food festival’는 첫날 중국, 페루, 일본, 두 번째 날은 중국, 몽골, 네덜, 세 번째 날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로 9개국의 학생들이 본토의 음식을 선보였다.

유학생회 회장 파르티반 파사말리(메카트로닉스 박사과정)씨는 “우리가 자랐던 나라의 음식들을 만들고 소개하는 것이 문화적 교류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음식을 맛본 김현주(미술학과 3)씨는 “다양한 국가가 모여 음식

부스를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많은 귀감이 됐다”며 “푸드코너를 운영한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친절하게 말을 걸어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학생들과 자주 소통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학생회 푸드박스는 한국의 김치전 같은 ‘Tharai adai’ 인도식 감자불 ‘aloo bonda’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치킨 볶음밥인 ‘Biryuni’ 등 다양하고 전통적인 음식을 소재로 매년 진행되니 올해 대동제에 맛보지 못한 학생들은 내년에 찾아가도 좋을 법하다.

김민경 기자

제주포럼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대학’ 세션 개최

제주대 평화연구소(소장 변종헌)가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둘째 날인 5월 26일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대학’ 세션을 주관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고성준 제주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리마오센 중국 인민대 교수, 오카가키 토모코 일본 독쿄대 교수,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역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대학의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논의했다.

리마오센 교수는 “고전(古典)에 담겨 있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은 대학의 리더십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세계화와 지역주의 시대에 개인의 도덕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도덕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유교의 도덕사상이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카가키 교수는 “아시아 대학의 교육이 공적 요구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배돼 왔다”고 지적하며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국경을 가로지르는

학문공동체 사이의 공동연구와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대학 교육의 방향은 기본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제주대 양길현 교수와 김민호 교수 역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주도해 나갈 젊은 리더들을 배출해야 한다는 대학의 시대적 사명에 공감하며 발표자들의 논의를 확장시켰다.

양길현 교수는 “다면적 지배가 정착되어 있는 유럽대륙과는 달리 동아

시아에서는 다자적 접근이 쉽지 않다”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일과 한미 등 양자적 접근에 주력하는 국제정치적 개입과 그에 편승하는 한국, 일본 정부의 정치적 편향도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가능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교수는 “아시아의 대학들은 아시아 지역의 문화, 종교, 정치체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구의 근대화된 패러다임을 넘어서 지역별, 국가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발전모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건 기자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제주대 스토리텔링학과는 6월 20일까지 ‘제주 미래특화형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제주 미래특화형 스토리텔링의 핵심 분야로 꼽을 수 있는 박물관 및 테마파크, 자연지리 및 과학기술, 음식(유형문화), 도시경관 분야 등의 교육과정을 지원해 전문 스토리텔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 사회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희 기자

평화섬 하계 워크숍 열려

세계섬학회와 제주대학교 세계한경과 섬연구소가 6월 1일 오후 5시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2016 평화섬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 주제는 ‘대만과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비극을 국제협력으로 공유하기’다.

고창훈(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린 행사에선 미국 동양연구소 고혜성 박사와 최임자 선생이 ‘제주 문화적 정체성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장수사업’, 세계섬학회 케네스 맥도드가 ‘제주 4·3비극을 공유하기, 화해의 길’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레이첼 브룩스 신성영교 교사가 ‘타이완 2·28비극과 제주 4·3비극의 만남’, 세계섬학회 에밀리 베이커가 ‘2016 하계 대학 국제홍보’에 대해 발표했다.

고창훈 교수는 “제주 4·3의 다음 단계로서 올해 8월 제주세계평화와 아카데미와 9월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청원의 미국 의회 제출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제17회 제주여성영화제

‘요망지니’ 모집

(사)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여성영화제에서 제17회 제주여성영화제와 함께 할 ‘요망지니’ (자녀활동가)를 모집한다.

‘요망지니’란 제주말로 ‘요망진 아이’란 뜻으로 제주여성영화제의 자원활동가를 부르는 이름이다. 활동으로는 여성영화 미러보기 등의 프로그램 기획, 영화제 전·후 기간 온·오프라인 홍보 영화제 등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6월 13일까지이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6월부터 본 영화제 기간인(2016. 9. 29(목)~10. 2(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064-756-72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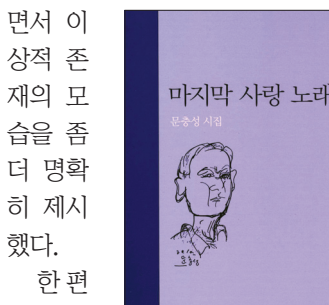
문충성 명예교수, <마지막 사랑 노래> 출간

문충성 제주대 명예교수의 시집 <마지막 사랑 노래>가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됐다.

1977년 <문학과지성>을 통해 등단한 문충성 시인은 약 천여 편의 시를 발표하며, 시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이어왔다.

이번 시집의 해설을 쓴 김진하(문학평론가)는 “낭만적 지향이 강렬한 만큼 이를 가로막은 현실의 타락은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간 그의 시집에서 그는 외할머니, 아내, 딸, 손녀, 머느리 등 그의 주변에 머무는 여성들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여왔다. 이번 시집에서는 ‘엄마’라는 존재를 직접적으로 호명하



면서 이상적 존재의 모습을 좀 더 명확히 제시했다. 한편 시인 문충성은 1938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원 불어불문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77년 계간 <문학과지성>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제주바다>, <설문대할망>, <허물아버린 집> 등이 있다.

김해건 기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후기 신입생 모집

제주대 산업대학원(원장 이개명 전기공학과 교수)이 6월 7일부터 10일까지 2016학년도 석사과정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학과 및 전공별로 약 간명이다.

구술 및 면접시험은 7월 7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7월 19일 발표된다. 모집학과(전공)는 △전환경영학과 △원예학과 △동물자원학과 △어업학과 △중식학과 △지구해양학과 △기계공학과 △에너지공학과 △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환경생명공학과 △해양생물공학과 △농업경제학과 △산업디자인학과(시각, 공업, 공예) △풍력공학과 △말산업학과. 문의☎064-754-2191

김정희 기자

제36회 백록문학상 당선작 발표

>> 시 당선작

정의할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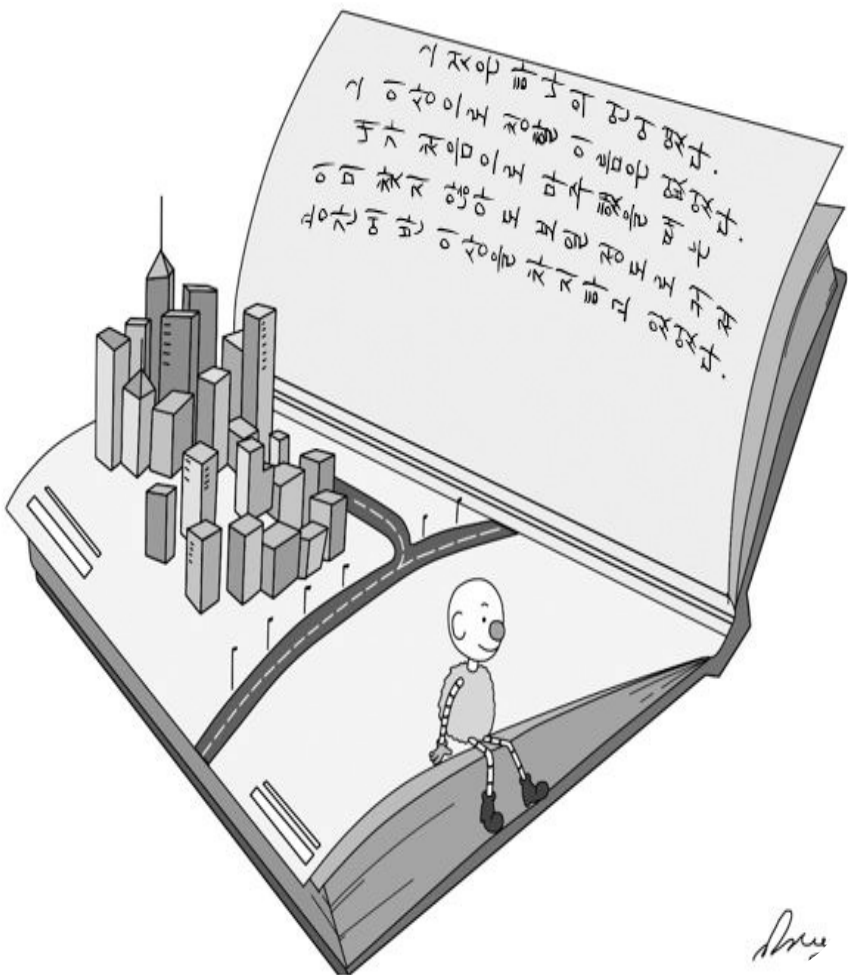
조 안 나 (국어국문학과 3)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니다. 존재를 확인하기도 힘든 크기였던 말입니다.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니다 싶어서 우리 모두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그 끔찍한 것이 글썽, 어느 날부터 조금씩 커지더니....

그는 마치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이처럼 온몸을 떨며 점점 얼어붙어 간다는 듯이 자신의 몸을 부둥켜안았다. 그 이후의 일은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였다. 그 이상으로 칭할 이름은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는 이미 찾지 않아도 보일정도로 커져 공간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놀라 뒷걸음질 치고 있던 그때, 그들에게 달려든 거대한 언어가,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다 틀어막고, 보랏빛으로 질려가는 그들의 머리부터, 조금씩, 차근, 차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의 자리를 차지해가기 시작했던 것.



>> 소설 당선작

나를 위한 동화

이 연 희 (국어국문학과 3)

애-. 문득, 머릿속으로 어떤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애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 그저 말 그대로 문득,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푸른색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게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목이 아프고 손이 저렸다. 엉덩이도 허리도 아팠다. 나는 내가 내내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딱딱한 바닥에서 고집스럽게 다리를 끌어안고 앉아 있다는 것도. “괜찮니, 애야?” 머릿속에서 울리던 목소리였다.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잘 움직이지 않는 고개를 내리자 눈길에 가는 곳마다 색색으로 빛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얼마나 앉아있던 건지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을 넘어진 후에야 제대로 설 수 있었다. 딛고 서 있는 땅이 겼었다. 주변은 조용했다. “여기란다.”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린 쪽에는 가로수들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 있었다. 고요한 풍경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도 바람도 없이 모든 게 멈춰있는 듯했다. 그래서일까. 거리가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그래, 여기야.” 가로수 중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렸다. 다른 가로수

들보다 키가 컸고, 유독 하늘을 향해 가지가 뻗어 있었다. 잔가지들이 억지로 쳐내진 다른 나무들과 달리 그 나무만은 가지 끝이 온전했다. 그쪽으로 다가가자 나뭇잎이 더욱 부드럽게 살랑거렸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지 않았다. “안녕?” “어... 안녕하세요?” 가까워서 본 나무는 더욱 거대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한참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도블록 위에 난 좁은 흙바닥을 가득 채워 마치 아스팔트와 블록과 한 몸으로 자라난 것 같았다. 아름다운 나무였다. 내 감탄을 알아차리길라도 한 듯 가는 가지들과 나뭇잎이 잘게 떨렸다. 웃어서 몸이 떨리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뭘 보고 있었니?” 나무가 건넌 질문에 내가 무얼 보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했다. 눈을 가득 채우던 파란 하늘. 하지만 하늘을 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조금 더 작고, 둥그렇고, 보다 더 빛나는 것. 대답하기 전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을 보고 있었어요. 달은 어디 있나요?” “달은 밤에 뜨지. 지금은 낮이라서 보이지 않아.” 그 말을 듣고서야 달이 새까만 하늘에서 빛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렇게 당연한 일을 잊고 있었다니. 머리가 조금 멍했다. “아, 그래요. 달은 밤에

떠요.” 나무는 나뭇잎을 흔들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는 생각에 조금 부끄러워졌다. “나무님은 무얼 보고 있었나요?”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단다.” “저를요?” “그래,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 나무가 더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더는 말이 없었다. 왜인지 내 앞에 선 나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랫동안이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말하는 걸까. 어쩌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지켜보았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었다. 달이 밤에 뜬다는 것을 떠올릴 때처럼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꼭 방금에 태어난 것 같았다. 푸른색이 내 눈앞을 채웠을 때, 모든 게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게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었다. 그 전에도 내가 존재했다는 걸 분명히 하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건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어렴풋한 달, 그 흐릿한 이미지가 더 답답해서 속이 울렁거렸다. “괜찮니?” “이상해요. 저는 왜 여기에 있나요?” 한 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자 모든 게 이상해보였다.

>> 시 심사평

자신만의 세계 드러내...문학적 성장 기대

이번 백록문학상 공모전에서 시작품은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총 62편 중에서 <갈 곳 없는 이에 게 (1)>, <수마>, <정의할 수 없는>, <길>, <눈물은 왜 잔가> 등 5편으로 압축됐다. 예선에 오른 작품들은 그 수준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당선작을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래서 응모자의 다른 작품들의 수준을 살펴보고 이 중 「정의할 수 없는」을 당선작으로 뽑게 됐다. 「정의할 수 없는」은 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었다. 시란 개연성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잡기 힘든 추상적인 세계를 상상으로 구상화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성이 있는 시인은 자신만의 세계를 설립한다고도 한다. 당선작이 바로 이런 특성을 살리고 있는 시적 특성을 담아내고 있었다.

사실 이번 응모작품 중에는 일상 어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도 있었다. 이런 작품들은 SNS 상에 떠돌고 있는 언어 수위에 갇혀 시를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 일상의 어감 고운 어휘를 나열하는 경우, 큰 의미 없이 가운데 정열을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런 작품들은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고 진부해져 시적 긴장에 실패하고 있었다. 「정의할 수 없는」은 단연 빼어났다. 인식의 씨눈이 점점 커져서 존재를 드러내고 자리차지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문학적 성장을 기대하게 해 주는 작품이었다. 마지막으로 역사나 시대, 사회적 소재에서 남다르게 인식하고 이를 시적 표현으로 내비쳐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겸허한 자세로 꾸준한 정진 부탁드린다.



양영길 시인과 고시홍 소설가가 5월 27일 신문방송사에서 백록문학상을 심사하고 있다.

>> 당선소감

백록문학상은 내게 있어 커다란 반환점

솔직히 어지러운 마음으로 쓴 탓에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당선됐다는 말에 정말이지 믿을 수 없었다. 일단은 이런 글을 읽은 데다 평가까지 하게 된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 올린다. 내 글로 인해 글을 보는 눈이 낮아지지 않았길... 올해는 시를 쓰기에 최고로 힘든 해였다. 시 관련 강의를 듣다보니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끄적였던 글들을 생각하며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쓴 시들은 그 성장의 발로이며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들뿐이다. 그중에서도 <정의할 수 없는>은 넣지 않으려다 많은 고민 끝에 끝까지



조안나 국어국문학과 3

에 넣게 된 글이다. 원래 어려운 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어려운 시에 접려서 하지 않았는데 시 관련 강의를에서 어떻게 접하다보니 그에 영향 받게 됐고 나도 모르는 새 완성돼 버린 시이다. 많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부여해 달라기에도 미안한 시기지만 그래도 나름 스토리가 있는데다 그 상황에 따라 어떤 의미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에 부여한 의미를 말한다면 고정된 이미지에 막혀 그러한 것을 찾는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 별다른 사실은 붙이지 않으려 한다. 이번 백록문학상은 여러 난제에 빠져있던 내게 가장 큰 난제였으며 그랬기 때문에 커다란 반환점이 됐다. 배운 것도 얻는 것도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1학기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

왜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왜 혼자 앉아 있던 걸까 나무는 어떻게 나를 아는 걸까 왜 많은 나무 중에 이 나무만이 나에게 말을 걸었을까 여기는 어디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된 걸까... 끝도 없이 생겨나는 질문들을 놀려 삼켰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나를 잠식했다. 불안감과 함께 세상의 색들이 구불구불 섞이고 있었다. 마치 투명한 물에 초록색, 하늘색, 노란색 등 여러 색의 물감을 한꺼번에 떨어뜨려놓은 것 같았다. 눈앞이 물감을 따라 빙글빙글 돌았다. “쉬어, 괜찮아.” 무언가 머리를 톡 건드렸다. 순간적으로 원래대로 돌아온 시야에 비틀거리자 튼튼한 나무 기둥이 내 몸을 받쳐주었다. “기억하지 못하는가 보구나. 괜찮단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 따뜻한 손이 등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쓸었다. 물론 나무는 손이 없었다. 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끼며 물었다. “무엇을요?” “자기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말이야.” 사고, 손끝, 발끝부터 서서히 몸이 싸늘해졌다. 온몸을 돌던 피가 갑자기 멈춰버렸다. 당연히 뛰고 있다고 생각했던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제가... 제가, 죽었나요?” “나는 네가 자동차라는 것에 치이는 모습을 본 것뿐이란 다.” “그럼 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죽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대체 무엇일까. 나무의 대답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바로 서서 가만히 손을 올려놓은 심장 부근은 너무도 차가웠다. 가슴께를 아무리 더듬거려도, 꼭 눌러보아도, 가슴 안쪽은 텅 비

어버린 것 마냥 고요했다. “저는 무엇인가요?” “나는 너와 비슷한 존재들을 많이 보았어. 대부분 한 가지만을 쫓고 있었지. 너처럼 다른 건 기억하지 못했단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인가요?” “그랬을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나무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대답을 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더구나.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 한 가지만 쫓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느 날엔가 모습을 감추고 영영 볼 수 없었어.” 나무가 이제껏 한 말 중 가장 길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웠다. “저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글썽.” 자신도 모르겠다는 듯이 말을 잘랐지만 왜인지 나무가 그 대답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묻지는 않았다. 대신 다른 것을 묻고 싶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어떤 느낌인지,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큰 감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저는 누구인가요?” “그건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니?”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걸요.” “그렇다면 그건 네가 알아내야 할 문제란다.” 나무는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이번에는 나무의 말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몇 살이나 되었는지도 모른다. 가족은 있는지도 친구는 있는지는 물론, 하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조금은 노란 빛을 띠는 둥그스름한 달이었다. 꼭 머릿속이



일러스트 김진영 (문화조형디자인 1)

까만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하얀 물감을 찍은 붓으로 그려놓은 동그라미 하나만 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동그라미 말고는 온통 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데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내죠?” “이름이 곧 나는 아니란다. 이름은 말 그대로 그저 너를 이르는 말일 뿐이야.” “그럼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다만 다른 사람이 너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네가 너를 부르는 이름이 중요한 거야. 그건 정말 네 자신을 나타내거든.” “나무님도 이름이 있나요?” “지금 부르고 있잖니.” 나무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담겼다.

“하지만 그건 나무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인 이름이지. 하지만 모두 그렇게 부른다.” “그럼 나무님은 이름이 없나요?” “나는 나를 ‘하늘’이라고 부르지. 하늘을 좋아하거든.” “하늘이요?”

유독 하늘을 향해 뻗어있던 가지가 떠올랐다. 하늘을 좋아해서 있는 힘껏 하늘을 향해가고 있는 거구나.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유독 아름다운 건 그래서일까. 자라난 나뭇잎을 따라 고개를 들어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느다란 가지는 점점 자라고 있었다.

가치 끝에는 밤이 오기 전, 서서히 열여져가는 하늘이 있었다. 그리고 희미한 달. ‘달이 있어요...’ “낮달이구나.” 희미한 하늘색과 희미한 달은 잘 어울렸다. 하지만 내가 찾는 달은 아니었다. 이대로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달이 선명해져도, 내가 보고 싶은 달은 아닐 것 같았다. “제 이름은 달이라고 하고 싶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순간에 유일하게 붙잡는 것이 달이었다. 나는 달을 얼마나 좋아했던 걸까. 달이 보고 싶었다. 기억 속의 그 달을 찾아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나무, 아니 하늘이 말했다. “이름을 짓는 걸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애야.” 나는 그 말에 그저 웃어보였다. 지금의 나에게 달은 전부였다. 달이 아닌 다른 이름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달을 찾으러 갈래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기억해낼 거예요.” “그래. 나도 떠나는구나.” 하늘이 작별인사를 하듯 입을 흔들었다. 나뭇잎끼리 서로 부딪쳐 기분 좋은 바람 소리가 났다. 나는 나무기둥을 한 번 꼭 끌어안았다. “조심하렴. 네가 바라는 걸 찾길 빌게.” “고마워요, 하늘님.” 흔들리는 나뭇잎을 잠시 동안 바라보다가 질여져가는 달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망설임 없이 떠나왔지만 막상 걷다보니 어디로 가야할 지 막막했다. 이곳도 저곳도 모두 낯설었다. 표지판의 글씨만 다를 뿐 모두 비슷비슷하게 보였다. 갈림길에 많아 나을 때마다 수도 없이 고민해야 했다. 골목으로 통하는 샛길에 보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도 맞는 길인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은 벌써 어두워졌다. 기억나는 것은 달. 그리고 희미한 기억에서도 특히 어렵풋하게 주변을 감싸던 나무와 주홍빛 불을 밝히던 가로등, 나무로 만든 벤치. 벤치에 앉아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주변의 풍경이 기억이 날듯 하면서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주 조금만 더 기억한다면 좋을 텐데. 살아있는 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해매기만 해서인지 힘이 들었다. 얼마나 걸어왔는지는 모르겠다. 다시 원래 있던 곳

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온 것 같았다. 너무 지쳐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벌써 이렇게 힘든데 달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누군지는 기억해낼 수 있을까...

그때였다. 갑자기 들려온 시끄러운 소리가 정신을 번쩍 깨웠다. 반사적으로 치켜든 눈앞으로 커다란 것이 켜 하고 지나갔다. 버스였다. 텅 빈 도로 위로 버스 하나만이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흘린 듯이 버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저만치 앞서가는 버스 안에 내가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버스가 지나간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버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리면 잠시 후에 뒤에서 다시 버스가 지나가고는 했다. 다른 자동차는 없었다. 오로지 그 버스만이 같은 길로 같은 속도로 달려갔다. 그렇게 어느 한 지점에 다다르자 버스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곳은 건물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 건물마다, 그리고 건물의 층층마다 무엇을 파는지도 모를 가게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었다. 어느 새 날이 다시 저물어가고 있어서, 가게 창문이 하나 둘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저절로 불이 켜지는 모습에 기괴했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어두워져도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옆에 있던 가게에도 불이 들어왔다. 여전히 목 뒹가 서늘했다. 불이 켜져 가는 가게 속으로 돌아가는 고개를 애써 붙잡아 내렸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걸까.

큰길가에서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자 길이 복잡해졌다. 한참을 헤매다가 도로 반대편으로 가보아야 하나 고민하던 무렵, 오른쪽으로 난 길 저편에 모여 서 있는 나무와 벤치가 보였다. 공원은 아니었지만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나무와 벤치와 가로등. 저곳이 틀림없었다. 단번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지쳐가던 몸이 순식간에 가벼워졌다. 길목에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벤치들. 대여섯 개는 되는 듯한 벤치들 중, 끝에 있는 딱 하나의 벤치만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이곳까지 달려온 것과는 다르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뛰지도 않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다. 혹시 무언가 잘못될까봐 달이 있는 하늘에는 시선도 주지 못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곳이 가까워졌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다른 곳과 똑같이 평범한 벤치였다. 그러나 나에게겐 꼭 이곳이어야 했다. 세찬 심장박동 소리가 저 멀리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까딱하면 벤치가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아주 살짝 엉덩이 끝만 대고 걸터앉았다. 슬쩍 고개를 들자 까만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달이 있었다. 기억과는 달리 선명한 달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달...” 하얗게 빛나는 달은 내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눈을 땔 수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인기가치가 느껴졌다. 깜짝 놀라 옆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착각인가 싶어 고개를 드는데 또다시 인기가치가 느껴지더니 누군가가 옆자리로 묵직하게 다가왔다. 동그란 달이 눈꺼풀 안으로 담겼다.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여전히 희

미한 그곳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달을 보고 있었다.

씨늘한 밤공기가 웃것으로 파고들었지만 추운 것을 느낄 수도 없었다. 하얀 달빛이 가로등의 주홍빛과 섞여 내렸다. 나와 그 사람이 드문드문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평범한 집들 사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천천히 눈을 떴다. 인기가치는 사라졌다. 달은 그때와 같이 빛나고 있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 내 기억은 그 사람에 관한 기억이었다. 그 사람은 누굴까? 떠올린 기억을 다시 되짚어보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이름은 커녕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몇 가지 뚜렷한 감각이 추가되었다는 것 빼고는 여전히 기억은 흐릿했다. 분명 알고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 답답한 느낌에 다시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숨을 푹 내쉬며 흘러버렸다.

새로 떠올린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을 따라가고, 또 다른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게 선명해질 것이었다. 기억을 좀 더 느끼며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곳을 찾아올 때와는 달리 골목길은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얼핏 본 골목길의 분위기는 이곳과 비슷했다.

얼마 걷지 않아 기억과 아주 비슷한 거리에 들어섰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 속의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차 하나만이 겨우 지나갈 좁은 길에는 꽃이 아무렇게나 자란 화분이 놓여있기도 하고, 가족이 다 헤진 낡은 소파가 놓여있기도 했다.

아직 불이 켜져 있는 집 안에서는 드문드문 사람들의 대화소리가 들려왔다. 기억을 잃은 후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낯선 집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왜 이 길을 걷고 있었을까, 생각하며, 어쩌면 집이 이 근처인지도 모른다.

들려오는 목소리 중에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가 섞여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당장 아무 집 안으로나 뛰어들고 싶었다. 도란거리는 목소리에 나도 기고 싶었다. 누군가 그리웠지만 어떤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완전히 혼자였다. 괜히 대화가 들려오는 집의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음이 더욱 가라앉는 기분이 들어 억지로 눈을 돌렸다. 홀로 빛나던 달의 앞으로 옅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느릿한 구름의 움직임과 함께 천천히, 작고 느린 내 발자국 소리에 조금 더 큰 발자국 소리가 겹쳐졌다. 이제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저 기억의 잔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다. 기억만 하지 못할 뿐,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중에 밤바다 보러 가자.” 갑자기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 목소리와 아주 비슷했다. 깜짝 놀라서 자리에 우뚝 서자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다. 좀 더 낮고,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다. “바다?” “응. 밤바다 보고 싶어.” “그래, 좋아. 가자.”

눈앞에서 검은 바닷물이 굳어진 한 몸처럼 출렁거렸다. 바다냄새가 났다. 검은 바닷물과 하늘이 동시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 수평선이 유난히 질었다. 허공에서 어둠에 모습을 감춘 등대가 한줄기 빛만을 뿔어 냈다. 그 옆으로 펼쳐지는 크고 작은 불빛들, 오른손에서는 온기가 느껴졌다. 내 체온보다 훨씬 따뜻한 손이었다.

밤바다는 아름다웠다. “저변에 갇던 곳으로 가자.” 다시 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가 좋았어?” “응. 너무 예뻐.” 다시 골목길로 돌아왔다. 우뚝 선 자리에서 망하니 눈을 깜박거렸다. 어둠 속에서 방금 본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따뜻하게 데워지던 손은 다시 차가워졌다. 어색하고 허전해서 주먹을 꼭 쥐었다.

또 그 사람이다. 기억하고 있는 기억, 새로 떠올리는 기억, 모든 기억이 그 사람과 함께였다. 누굴까? 주먹 톰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좋아하던 사람일까? 사귀는 사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속쓰러워졌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일하게 기억난 사람임에도 아는 것은 목소리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될 테다. 바다가 있는 쪽으로 향하면서 또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그 사람에 대해 궁금했다.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는 더 까맣게 물들어갔다. 혹시나 다른 기억이 떠오를까 바다로 내려가면서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더 이상 떠오르는 기억은 없었다. 지금까지 떠오른 기억만 곱씹으며 혼자서 상상해 수박에 앉았다. 목소리가 아주 좋았으니 노래를 잘 하지 않을까. 기억을 떠올릴 때 느꼈던 인가치를 생각해보면 나보다 키도 큰 것 같았다...

상상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간 것이다. 버스 말고는 움직이는 자동차를 본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게 전부였다. 나를 이끌어주었던 버스가 생가나, 막 커브를 돌며 사라지는 빨간 자동차 풍무나를 급하게 쫓으려 했다. 그런 내 옆으로 또 다른 자동차가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하얀 자동차였다.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그 뒤로도 줄줄이 달려왔다. 반대쪽 차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텅 비어있던 도로는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자동차들로 가득 차

다. 끝도 없이 줄지어, 엄청난 수의 자동차가 거북이처럼 조금조금 나아갔다. 어서 가라는, 뺑뺑거리는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어제의 조용한 거리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드문드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위에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자동차 운전석에도 사람은 없었다. 이상한 광경이었

》소설 심사평

‘소설쓰기’는 자신의 초상을 비추는 ‘거울’

출고 배고픈 세월을 등짐으로 살아온 보릿고개 세대의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문학도(文學徒) 아닌 사람이 어딴어.’라는 말을 곧잘 했다. 다섯 편의 소설을 심사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젊은 날의 문학, 또는 소설 쓰기는 당장 ‘밥’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별씨, 밀알’은 될 수 있다. 자신의 초상을 비추는 전신거울이거나, 그런 의미에서 낙선작은 응모자 이름을 숨겼다. 비탄에 잠기지 말라는 응원이다.

<나날>의 틀은 상담사인 그녀 질문하고 스물일곱 살의 내담자인 그녀가 응답하는 형식이다. ‘오즘 뭐하며 지내느냐, 걱정거리야 뭐냐, 가족관계는 어떤가.’라는 물음표 따라 그녀의 심경을 토로해 나간다. 매질을 일삼던 아버지의 영원한 기출로 편보 손에서 어른이 된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 살이에서 타인들과의 이질감, 무기력과 무로함애 빠진다. 인간적 체취를 감당한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내면의 밑바닥을 들춰내는 치열함이 부족했다. 터 파기에서 중단된 신축건물 공사장, 현장사무소 간판이 걸린 컨테이너 같다고나 할까. 소설 제목은, 창업자에게는 대박을 꿈꾸는 상호(商號)이기도 하고.

<내 이름>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간병하러 떠나는 어머니를 따라 휴가를 내고 제주에 온 내가 요양병원, 고향 마을을 찾는 이야기이다. 치매에 걸린 외할머니는, ‘내 이름’ 대신 출생 달포 만에 죽은 언니 이름인 난희로 호칭한다. 나는 제주를 떠나기에 앞서 꽃씨를 담은 봉투에 ‘홍난희’라고 써서 어머니에게 건네고 공항으로 떠난다. ‘내 이름’과 고향 마을 찾기, 외할머니의 치매 행동에 삼밭이 같은 유기적 장치가 없다. 일상적 삶의 단면을 낚설게 하는 압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냥 모른 척해주면 안 돼?>는 강민준이 오래전부터 사귀어오던 대학 커피 이연지에게 결별 선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연지와 K교수의 불륜 소문이 떠도는데다 다담이 섹스를 하기로 한 약속은 물론 손목을 잡는 신체 접촉마저도 거부한

》수상소감

수상으로 인해 한발 더 나아갈 힘 얻어

<p>제36회 백록문학상 소설 부문에 당선됐다</p> <p>는 연락을 받고 매우 놀랐다. 부족한 점이 뻔히 보이는 글이라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p> <p>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저는 오래 됐지만, 정식으로 완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로는 소설을 쓰고 싶다면면서도 항상 이런저런 일을 핑계로 소설은 뒤로 미루고 있었다. 처음으로 소설을 완성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확실하게 느끼게 됐다. 이제껏 문장에만 집착하고 완결을 내지 못했던 것은</p>	 <p>이연희 국어국문학과 3</p>
--	---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실 이번 소설의 주인공은 나로 가득 차 있다. 앞에 있는 것에 쉽게 휘둘리는, 아직 어리지만 한 내가 그대로 담겨 있다. 내 주관을 가지고 가야할 길을 곧게 걸어가고 싶은 마음에 구상하게 된 소설이다. 소설의 마침표를 찍으며 나는 소설의 주인공이 그런 것처럼 나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겠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당선됐다는 사실이 더욱 감사하고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소설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림지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번 작품과 오늘을 생각하며 한발 더 나아갈 힘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다.

다. 소음은 점점 더 심해졌다.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아무도 없는데 들려오는 목소리들. 뻣뻣하게 굳어진 목이 자꾸 돌아가려 했다. 세상이 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계속 되뇌었지만 점점 더 겁이 났다.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침착하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걸었다.

갑자기 갯길에 세워져 있던 차의 문이 벌럭 열리고는 다시 광, 하고 닫혔다. 아슬아슬하게 막고 있던 무서움이 한꺼번에 달쳐왔다. 무언가가 내렸다. 아니, 댔나? 보이지 않는 별레가 온몸으로 스름스름 기어 올라왔다. 나도 모르게 있는 힘껏 내달렸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무도 없는 소란스러움은 고스란히 느껴졌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쫓기는 건 아니었지만 온 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죄어들었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사고가 난 것도, 기억을 잃은 것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게 바라도 나는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그냥 달리고 또 달릴 뿐이었다.

하늘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많이 보았다고 했다. 나처럼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늘이 내게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지만 차라리 거짓말을 한 거라고 믿고 싶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라는 것이 더 괴로웠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달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함께 달을 보던 그 사람이 보고 싶었다. 동시에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피어올랐다. 나는 그 사람만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왜 기억은 흐릿하기만 한 거야. 소리 내어 울고 싶었다. 내가 누군지 궁금했다. 그 사

다. 변심한 이유로 단정한 이유다. 친구 김해설이 중재자로 나선다. 민준은 K교수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연지는 어릴 때 교회에 버린 쌍둥이 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오해가 풀린 민준이 연지를 찾아가 포옹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막장 드라마의 1회 방영용 각본 줄거리 같다.

<고해성사>의 주인공은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매사에 기도하는 게 몸에 뻘었다. 기도하는 행위는 보험에 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나의 영웅 같은 아버지가 책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신은 죽었다. 신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절규한다. 성당을 등지고 있던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에게서 ‘불행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며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境的 변화를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앞의 세 작품을 포함해서, 등장인물은 식물인간이며 구상이 산만하다. 묘사가 아닌 설명으로 일관해서 상상의 자유를 박탈당해 울림이 없다. 공통적 결함이다.

이연희의<나를 위한 동화>는, ‘내가 자동차에 치이는 모습을 목격’한 나무와 선문답 같은 질문이 오가며 ‘나는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살아 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에서 출발한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내기 위해 달을 따라 길을 나선다. 유령의 도시 같은 골목과 공원, 도로를 헤매다가 바닷가에 이른다. 바다에서 자살한 그녀의 ‘무서워 말고 꼭 참고 여행을 하다 보면 모두 알게 된다.’는 목소리를 접한다. 순간 ‘달에 사로잡혔던 별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박혔다...별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의 눈처럼 빛나고 있는’ 것으로 끝난다. 수련공이 빛은, 어른을 위한 동화다. 좀 도식적이지만 구조가 탄탄하고 간결한 문장이 흡인력을 자극한다. 등장인물의 실체는 없고 목소리만 존재한다. 오아시스를 찾아 사막을 헤매는 식물인간의 의식세계 같은, ‘참’으로 위장한 거짓의 합성일 수도 있었지만 당선작에 방점을 찍었다.

람이 누군지 궁금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달과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쩌서, 그 사람과 내가 누구인지가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더 이상 자동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달리기를 멈추었다. 얼마나 달려왔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자동차는 없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주 오랫동안 달려온 것 같은데도 숨 하나 차지 않았다. 처음 깨어났을 때처럼 주변이 너무 조용했다. 흐리게 그려진 유화 속의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때, 고요를 깨고 녹슨 쇠가 부딪치는 소리가 울렸다. 바로 앞 골목에서 난 소리였다. 그곳에서 누군가 나왔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내려고 희미한 기억을 마구 곱씹던 것이 무색하게도,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이었다. 처음 벤치에 도착했을 때처럼 가슴께가 풍광 뒹었다. 어렵풋이 느꼈던 것처럼 키가 아주 컸다. 부드러운 곡선을 타는 논매가 아주 예뻐다. 그는 마중을 나온 듯, 내게로 걸어왔다. 기억 속에서 들었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가까워지는 속도와는 상관없이, 아주 느리게 들었다.

영원한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었다. 이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정면에서, 눈이 마주쳤다. 아니, 마주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바로 앞에 두근도 보지 못했다. 나를 넘어, 내 뒤의 저 어딘가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와 나를 감싸던 순간은 유리조각이 되어 검은 아스팔트 도로로 부서져 내렸다. 원래도 뛰지 않는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뿐이었다.

바다가 코앞에 있었다. 짝짝한 바다 냄새가 꽤 안으로 가득 들어왔다.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다는 이상하리만치 잔잔했다. 수평선이 보이고 그 옆에 우직하게 서 있는 등대가 보였다.

마지막 기억 속의 바다였지만 별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대로 나를 스쳐지나갔다. 닿지도 못했다. 내가 그 자리에 없는 듯이, 그가 걸어오던 게 아닌 듯이. 새로운 기억도 없었고, 떠올렸던 기억도 희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내가 역지로 끼워 넣은 얼굴만이 달라졌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잡아보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 너머로 사라졌다.

그가 왜 도망치던 내 앞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그 자 있는 곳을 찾아가게된 건지도 모른다. 알고 있는 것은, 나는 여전히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물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왜일까.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 전부였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이렇게 허무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이름을 정하는 걸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면 하늘의 말이 생각났다. 이런 뜻이었을까. 내 이름은 달이 아니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모두 끝났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갑자기 귓가를 파고들었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바다 깊은 곳으로 잠겨 들어가다가 단번에 수면 밖으로 던져진 느낌이었다. 머리인지, 시아인지, 어절어절했다. 여자가 보였다. 딱히 나이가 들어보이지도, 그렇다고 어려보이지도 않는 여자였다. 어떤 걱정도 없는 듯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제가, 바요요?” “아주 잘 보여요.” 여자가 목소리만큼 밝게 웃었다. “저기, 사람이세요?”

환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심코 질문을 던지고 아차 했다.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비웃지 않고 다정하게 답해주었다. “사람은 맞아요. 그쪽도 사람이예요?” “네, 아, 자기, 살아있지는 않지만요.” “나도 그래요.” 열렬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지만, 모두 다 끝난 후인데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절망이 다시 나를 파고들려 했지만, 여자의 물음이 나를 붙잡았다.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기억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다 산 얼굴로 앉아 있어요?” 티가 많이 났던 걸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속내를 드러버렸다. 머쓱하게 얼굴을 매만졌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여자가 다시 말을 건넸다.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네, 조금요.” “힘들었겠네요.” 여자가 몸을 움직여 내 옆에 앉았다. “저도 기억을 따라왔어요. 이곳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요?”

그녀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신차려보니 저 어디쯤에 있었어요. 파도도 거의 치지 않는 바닷물에 떠밀려 왔어요.” 무서웠을 텐데도 여자는 담담했다. 나에게서는 하늘이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혼자서 떠나 다시 혼자서 이곳까지 돌아왔다.

“난 내 발로 바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내 표정을 알 수 없어서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바다만 바라보았다. 수면이 해가 지면서 불그스름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쪽도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 있는지 화가 났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되찾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바다로 내몰렸던 순간들. 그녀를 따라 나도 다른 생각에 잠겼다. 내가 떠올릴 것이라고는 달과 기억 속의 그 사람밖에 없었다. 내 전부였던 사람.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제는 다 알아요. 멍청한 짓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해는 돼요. 당신은 아직 길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녀가 나를 보며 물었다. 대답을 바란 것 같지는 않았다. “당신과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더 겁에 질려 있었지만요. 자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찾고 있던 것이 답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영영 자기를 알 수 없을까봐 겁에 질려 있었어요.” 꼭 내 이야기 같았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포기해버

렸어요.” 그렇구나. 아무렇지도 않았다. 조금, 아주 조금 마음이 가라앉을 뿐이었다. 나도 막 포기하려던 참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포기해버린 것에 대해 비난할 수 없었다. “포기한다는 건,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녀의 눈이 나를 집착해왔다. “모든 걸 놓아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그냥 녹아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끝이 나는 거죠.”

그녀의 눈빛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말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늘이 나를 불러 깨우기 전이 생각났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도 모르던 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걸까.

흐릿한 내 기억처럼 나도 세상의 흐릿한 기억이 되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버리는 걸까. 나는 그리고 싶은 걸까. “당신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여자에게 물었다.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주제에 무섭더군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났나요?” “이래 봐도 오랫동안 돌아다녔으니까요.”

진지하게 말하던 여자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가볍게 웃었다. 편안한 표정과 여유 있는 태도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나 보다. 그녀에게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잘 견뎌냈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 처음은 하늘에게 도움을 받고, 기억은 겨우 두어 번 떠올렸을 뿐이다. 아주 조금 발버둥을 치다가 이내 지쳐서 단념해버리고 마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그녀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 작게만 느껴졌다.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아요. 모두 다 겪고 있는 일이니깐요. 그냥 발길 가는 데로 따라가면 돼요. 꼭 참고 여행하다보면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요. 당신의 기억에 휩쓸리지 말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모두 보여줄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라며,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라고 미련 없이 일어났다. 나는 작별인사도 없이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내가 콧물이 걸려간다면, 인젠가 저 뒤통수이 나의 뒤통수이 되리라는 것도 알았다. 열게 깔린 아돔 위로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깐 달로 시선을 돌린 그 짧은 시간에 그녀는 사라졌다. 수평선이 어둠을 빨아들이며 본격적으로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내가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지금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요. 당신의 기억에 휩쓸리지 말아요.’ ‘이름을 짓는 걸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그녀의 말과 하늘의 말, 아무리 떠올려도 희미하기만 하던 기억 속의 달, 만나도 기억해낼 수 없던 그 사람, 이제 알 것 같았다. 달은 답이 아니었다. 하지만 답이 아닌 것도 아니었다. 밤하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달은 내 전부가 아니었다. 그것도 그저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일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 한 가지만 쫓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느 날엔가 모습을 감추고 영영 볼 수 없었어.’ 선했했던 달이 점점 희미해졌다.

처음으로, 아주 작게 반짝이고 있는 별이 보였다. 이제껏 달에 사로잡혀 보지 못했던 별이. 그 반짝임을 깨닫고 나자 마음속으로 들어와 박혔다. 하나, 둘, 셋, 넷… 하얀 동그라미만이 그려져 있던 종이에 별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모든 별들이 내 눈 앞으로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했다.

땅에 닿은 발을 더욱 힘껏 굴렀다. 도미노처럼 늘어진 아파트 건물을 넘어 별이 더욱 가까이 달려왔다. 줄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몸을 뒤로 젖혔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본 사람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늘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멀리 떠나왔다. 돌아가서 다시 이름을 불러줘야겠다. 아마 이번에는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 일어서서 웃을 틈었다. 다시 떠나야할 시간이었다. <끝>

권하고 싶은 책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몸의 신비> 앙드레 지오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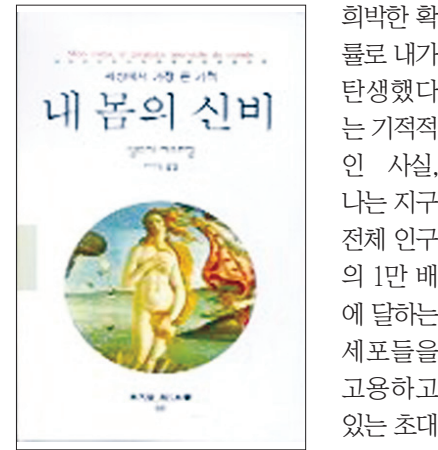
이규석 옮김/동문선

이 책은 13년 전, 그러니까 이 책이 번역·출간된 지 1년 만에 내가 접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채, ‘나만의 약점’ 때문에 자존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20년 가까이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고 있던 나에게 이 책은 소중한 나를 발견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책이었다. 그래서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문학강의는 늘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목에 끌려 손에 잡게 된 논문이나 책을 다 읽을지 여부를 나는 서론과 결론을 읽어보고 정한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네 문장이 나를 사로잡았다. “당신의 습관을 버리게 될 것이라곤 장담했었다. 이 책을 덮고 앉았을 이 거울 속의 당신을 바라보라. 당신에게 다가가서 마주하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적이 아니던가?” 다시 서문을 보니,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누구라도 “예전처럼 자신을 바라볼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포켓북보다 조금 더 큰 판형의 168쪽에 불과한 이 책은 단숨에 독파할 수 있었다. 간혹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 큼직한 수치들이 걸림돌이 되기는 했지만, 핵심만 쏙으면서 내달렸다. 다행히 제목이 붙은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핵심만 쏙고 내달리는 읽기가 어렵지 않았다.

이 책의 핵심내용은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다. 십여 년 전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로모열풍이 불고 있었다. 수백억짜리 로모버락을 맞은 사람에 관한 불길한 소식도 전해졌지만, 거의 모두가 로모당첨이라는 기적을 희구하던 때였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 훨씬 더 희박한 확률로 탄생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각 장은 바로 이 기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만남부터만 셀더라도 이미 복권에 여러 번 당첨될 확률보다 더



화장이라는 기적적인 사실 등을.

기적을 학습고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기적 ‘만’ 일어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은 욕심 없는 상태를 말함이나, 조금 과장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고도의 근원인 욕심을 버리고 이미 내 것이 된 기적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여유 있는 삶은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니겠는가!

1996년 노벨화학상을 공동수상한 파울 크루첸 Paul Crutzen이 2002년 과학저널 네이처誌에 기고한 논문에서 ‘인류세 the Anthropocene’ 개념을 제안한 이래로, 지질학적 세력으로 성장한 인류가 초래한 기후 변화에 관한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구에 무임승차하여 지구 곳곳에 생태발자국을 남기며 생태위기를 야기한 인간이 이제 는 지질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인식을 일부 학자들이 공유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에 한국의 한 물리학자는 당시의 생태위기를 초래한 인간을 ‘치출한 거인’이라고 명명했다. 힘은 거인이지만 자신이 거인임을 깨닫지 못한 인간이 생태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치출한 거인’이 자신이 거인임을 인식하여 ‘당당한 거인’이 되어 자신이 초래한 생태위기에 대처함은 물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자신의 몸의 가치를 오늘 당장 충분히 누리는 데에도 이 책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송성희 독일학과 교수

제주학연구센터·대학 연구기관 협력 필요

기고 제주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박 찬 식
(사학과 81)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학은 제주라는 독특한 자연적·지리적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온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복합학문이다. 곧 제주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제주학은 제주인이 주체가 되어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학제간의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지역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주지역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을 지향함으로써, 제주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조망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21세기 제주도는 세계화의 총체적인 흐름에 직면하여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며, 지역의 특수성·보편성의 조화, 사람·문화와 자연경관의 공존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래의 제주도는 남방 해양문화와 북방 대륙문화의 교차 지점이며 동아시아 해역의 거점으로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로 발돋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학의 연구와 대중화에 매진하고,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기획·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공공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러한 내외적 환경과 배경 속에서 2011년 8월 출범했다. 이제 설립 5주년이 되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지방정부가 출연한 첫 제주학 관련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회고

와 반성을 해볼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센터는 연구 공모지원사업의 실시, 제주학 아카이브의 온라인 구축 운영, 제주어 중점연구 등 구체적인 연구사업을 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제주학의 다양한 분야별 연구가 부족한 편이며, 복합적이며 공동협업을 요구하는 대형과제 연구를 기획·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제주학 아카이브의 구축 또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아카이브 센터의 존재는 아직 꿈에 불과하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제주학의 대중화·보편화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센터가 가장 유능한 연구인력이 포진한 대학의 유사 연구기관과 무슨 차별성을 갖는지 설득해낼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센터가 해야 할 공공적인 일이 무엇인지 정립하지 않으면 센터는 대수롭지 않은 ‘또 하나의 연구기관’에 그쳐 버릴 것이다.

센터가 확실한 대안 연구기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가령 대학이 제주학 관련 연구와 학생 교육, 학문 후

속세대 양성에 주력한다면, 공공 연구기관인 센터는 연구 지원, 시민 교육, 학문 후속세대가 참여할 공공 연구사업 개발과 시행에 치중하는 등 상호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고 보완·협력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연구사업을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는 기획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청소년 교육사업, 시민강좌, 교양서적 발간 등 시민을 향해 ‘열린 제주학’도 센터의 공공사업에 해당된다. 제주학대회를 열어서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선 시민과 학생·청소년이 어울리는 새로운 학술축제의 장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대형 공공 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련 학문 후속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인큐베이터 사업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고전번역사업 등 토대 연구사업, 제주통사 및 제주어대사전 등의 대형 편찬사업 등은 대학과 교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경력과 역량 등 토대를 갖추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과 새로운 공공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 간에 공존·협력의 원칙 위에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전망해 본다.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제주학 정책포럼이 열리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차별없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돼야

제주의 다문화사회 진입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제주 사회를 제대로 알려면 기본적으로 제주사회가 갖는 자연적 환경과 제주인의 생활상,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규명해 볼 수 있다. 제주사회는 제주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국내외 이주자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보이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주인이 지닌 배타성과 차별성과는 별도로 현재 급속하게 제주 사회가 외국인 이주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는 다문화와의 공생 문제가 표면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이 늘어난 계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이주노동자 유입과 결혼적령기의 늦어준 거주 남성들이 국내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국제결혼이 보편화돼 결혼이민 여성이 증가했다. 또한 제주 지역 다문화가족 등의 외국인 수 증가 현상을 최근에 불고 있는 내국인 제주이주 증가 현상과 제주지역 가족해체 비율 급증 상황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제주지역 외국인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주도로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으로 외국인 수는 1만9903명으로, 이는 2014년 1월 1만5568명 보다 4335명(27.8%)이 증가했고, 도내 주민등록 인구 대비 3.3%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11.0%에 비해 제주의 경우 27.8%로 전국에서 외국인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 여성은 2918명으로 2014년 1월 2696명 보다 222명(8.2%)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제주지역 결혼이민여성 증가세(8.2%)는 세종특별자치시(9.6%)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국 결혼이민여성인 2014년 24

만203명에서 2015년 23만9698명으로 평균 0.2%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이른바 다문화 가족도 3245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제주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인종 국가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 사회가 그동안 뿌리박혀 있는 배타적 기질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험이 적어 대다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들은 다름과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미숙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문화차이의 문제점,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다. 이 소통은 단순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를 넘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가 차별 없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들과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성별, 민족, 계층, 문화집단의 학생들에게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협동,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능을 습득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공동체의 수립을 돕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가 정체성 확립 및 편견의 해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판적인 미디어 이해와 분석, 올바른 미디어 표현과 활용을 위한 미디어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미디어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개별 미디어의 이해와 그것을 다루는 미디어 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화 교육의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다문화미디어교육은 또한 이주민들을 문화적으로 따뜻하게 보듬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용복 팀장



3월 31일 제주글로벌센터에서 제주이주여성들이 선거 참여 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수시론



고 봉 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자세

매일 정한 분량을 쓰는 것

수불석권 필일오 삶에 적용

인생살이는 곧 장편소설

덕으로 읽고 삶으로 쓴다

”

수불석권(手不釋卷)과 필일오(必日五)

송나라 구양수는 침상, 말 안장, 화장실이 책 읽기 가장 좋은 곳이라 했다. 필자가 좋아하는 독서 공간은 ‘비행기 안’이다. 피곤해 잠을 청할 때도 있지만 깨어있을 때는 한편의 책에 온전히 집중한다. 반면에 필자의 연구실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인지 몰입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탁 트인 커피숍이나 버스 안에서 책을 읽기에 좋다. 독일 유학시절 전철(S-Bahn, U-Bahn)이나 버스 안은 내 독서 공간이었다.

지금은 ‘아들 정훈이를 보는 시간’이 내 독서 시간이다. 정훈이가 TV 애니메이션을 볼 때 난 옆에서 책을 읽고, 밖에서 뛰어놀 땐 책을 들고 다녔다. 최근에는 아이폰을 보거나 명 때리는 시간이 많아져 많이 아쉽다. 나예전 독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 더 있다. ‘시험감독 시간’이다. 예전엔 조교에게 시험감독을 부탁하곤 했는데, 시험감독 시간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고는 좀처럼 남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감독관’의 추천도서 한 권을 들고 시험장에 간다.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 ‘수불석권(手不釋卷)’이라는 사자성어는 ‘삼국지’의 ‘여몽전’에 나온다. 손권의 신하인 여몽은 무술이 능했으나 학문에 소홀히 했다. 손권은 여몽에게 손에서 책을 놓지 말기를 권했다. ‘수불

석권’을 실천한 여몽은 ‘팔목상대(刮目相對)’의 주인공이 된다. ‘팔목상대’는 어룡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팔목상대’의 전제 조건이 ‘수불석권’이라는 점이다.

어느 날 소설가 김훈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봤다. “책을 읽고 글을 몇 자를 쓰자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한다. 항상 마감은 정해놓지 않고 하루 다섯 장을 쓰자고 정해놔다. 200자 원고지 기준이다. 책상에 ‘필일오(必日五)’를 적어놔다. 하루 5매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김훈 작가도 나랑 똑같이 ‘하루 5장 쓰기를 고민하고 있구나, 그는 실천하는데 나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5장의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심코 ‘필일오’의 기준이 200자 원고지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200자 원고지로 5매면 A4용지로는 몇 장인지 궁금해졌다. A4용지 한장이 200자 원고지 8~9매 정도였다. 그러면 김훈 작가는 A4용지 한장이 채 되지 않은 분량을 하루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난 이제껏 A4 용지로 하루 5장을 생각했는데, 나의 과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반의 반 장도 쓰지 않으면서 5장을 생각하니...’ 하루 한 자도 쓰지 않을 때가 많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긴 글을 쓰게 한

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 2013년 여름 유럽여행 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산에서 강 쪽으로 내려왔는데 강가에서 올라다 본 산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 거리를 내가 걸어온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최근에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한라산이 흰하얗게 보이는 우리 집 바다 앞에 새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 한라산 조망이 가리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래도 기초를 닦고 하나하나 집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니 건축이 글쓰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불석권(手不釋卷)과 필일오(必日五)는 ‘인생살이’에도 적용된다. 인생이라는 책은 장편소설과도 같다. 그 책에는 인생의 굴곡이 있고 회고애락이 다 들어 있다. 인생이라는 책은 덕으로 읽는 책이고, 삶으로 쓰는 책이다. ‘인생이라는 큰 책’ 읽기와 쓰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인생이라는 책’은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고, 제일 중요한 책이다.

자신의 인생을 흥미진진한 연작소설로 작성해 보자. 자신의 스토리를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자. 여전히 ‘인생 하수 학문 야류’에 머물러 있는 내 삶과 학문야외비상(飛上)의 날개를 펴고 날아보자.

기자수첩



김 해 현
편 집 국 장

2014년 12월 당시에 정문의 교통 문제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기자는 취재를 하기 위해 도청에 전화했다. “제주대 정문의 교통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도청 관계자는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차량관리는 자치경찰단이 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자치경찰단에 전화를 해보니 “안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 대한 각성 필요해

전시실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 기자는 세 번의 전화 끝에 시청에서 “시정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2015년 3월, 도로에 버스가 무단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기자는 자치경찰단에 전화했다. “지난 번에 제주대 정문 교통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시정된 게 없어서요”라고 말하자 자치경찰단은 “버스회사와 연락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이나 정문 교통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기자는 담당 공무원들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아진 점은 하나도 없다. 그들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뿐이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2016년 5월, 이

번에는 직접 자치경찰단에 버스의 불법주차, 학생들이 위험하게 도로를 건너는 사진들을 가지고 찾아갔다. 문제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아이고, 그 문제는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닌데”라며 “도청 담당이니 도청으로 가보라고 했다. 도청에 찾아가니 “관리·단속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데 그쪽에 문의해보세요”라고 답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의 책임 미루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고 한다. 업무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책임소재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민원에는 부서 간 업무를 회피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에 따

라 주민들의 민원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맴돌기만 한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게 된다.

이번 정문 교통 문제로 마찬가지로 다. 그들은 서로 책임을 미뤘고, ‘해결할게요’라는 형식적인 답변은 신뢰할 수 없었다. 그들이 문제 해결책을 요구한 기자의 말에 한 번만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문제점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최초 문제를 제기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교통무원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기자의 제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 혹시 지금도 서로의 업무가 아니라고 여러 부서에 전화를 돌리며 “거기서 처리하세요”라며 우리의 불편을 무시하는 것을 아닐까. 그들의 책임감 있는 말을 마치 막으로 믿어본다.

사 설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출산을 저하, 대학 진학률 감소, 일자리 부족 등의 상황이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서의 준비는 무엇이 필요할까? 아마도 교육기관의 기본에 충실한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몇 가지 고민해볼 것을 보면, 체육대회 관련 1학기는 단과대학별로 행사가 이어지는데 교양과목의 경우 많은 학생들, 특히 저학년들은 학생회에서 만든 공경문을 제출하며 출석으로 인정받으려 한다. 과연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공식적인 결석이니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큰 붉은 색 사각형의 도장을 찍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학생들은 인적사항만을 빈칸으로 남겨두고 출력한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적어 효과 있는 서류로 알고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대 학생들은 허위 문서 만드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학기 중 출석을 주말을 이용해 진행한다면 외부 참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엉터리 공경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수업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바람직할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의 약한 시간 개념 ‘Korean Time’을 제주대에서 먼저 극복해 보자. 강의나 업무는 9시 등 정시에 시작하는데, 이때 그 시작은 강의실이나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수업,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마쳐진 상태, 즉 양이 아니라 질로 학생, 교직원 모두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캠퍼스 차량 증가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보자. 차량이 늘어 혼잡하고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창피한 방법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시간 낭비가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인 학습을 통해 지식, 노하우를 만드는 과정으로 대학에서 꼭 강조해야 할 과정으로 이용하자. 학교이기에 바깥 관공서나 시장 해법과는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는 고민과 노력은 학습의 일부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고민의 과정을 중시하며 배워가는 기회로 삼는 사고의 전환이 대학에는 소중하다.

대학교는 학습을 통해 지식, 사고 역량을 키우고, 선도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가장 상위의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이기에 대학교는 대학내 문제 해결에 고민없이 바깥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과 그 결과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할 수 있기에 가능성을 여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교는 관공서도 사업체도 아니기에 항상 제3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해야 할 대학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모든 일에 고민하고, 논의하고, 방향을 정해 실천하고 다시 고민하며 개선하는 노력의 순순환고리가 제주대에서 작동했으면 한다.

대동제 진정한 ‘도민의 축제’로 거듭나야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2016 아라대동제 ‘삼일쫄’은 관창가’가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대동제(大同祭)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대학이라는 지성인의 축제인 만큼, 그만큼의 명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동(大同)’인 만큼 일만아라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문 공동체에 특별한 결속력을 주는 행위이자 대학의 문화 양성을 위한 제도화된 형식이기도 하다.

‘내일로 총학생회’는 도민의 축제이자, 모두가 함께 웃는 대동제를 기획했다. 강민우 회장은 오늘자 제주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축제 테마를 ‘즐거고 놀 수 있는 문화’로 기획한 만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서 “매년 불거졌던 노점상 문제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전체적인 기획의 도를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대동제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대동제기간 내내 다양하고 이색적인 축제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교만의 작은 월드컵 위닝월드컵, 역대 아라스타 수성자들이 한곳에서 대결하는 아라스타 왕중왕전, 버블슈트를 입고 축구를 하는 ‘버블사커’, 일반 학생들과 총학생회가 함께 대결을 펼치는 ‘일만아라 vs 내일로’, 총학생회 임원을 찾는 ‘내일로 공개수배’, ‘이런지 멀리 던지기’, ‘제자리 뒤로 멀리 뛰기’ 등 예년과 달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이 다수 선보였다.

학생들의 축제참여 열기나 현장만족감도 높은 편이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는 평가다. 대학원생을

비롯해 부족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기획돼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교류 측면에서 시야를 넓히는 기회 됐다. 이번 대동제가 일부 우천에도 불구하고 ‘축제다운 축제’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밤낮으로 축제 기획을 위해 헌신한 총학생회나 곳곳을 맡아다지 않은 자원봉사 학생들, 교직원 모두가 축제를 위해 헌신했기에 가능했다.

현제로서 우리 대동제의 속제는 ‘도민의 축제’로 승격될 수 있는가’이다. 대동제를 현장에서 지켜본 지역인문 기자들도 “대동제가 여전히 먹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많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부족했다”며 이번 대동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물론 대동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는 그들의 몫이지만 대학과 재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도민 축제를 위한 시발점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제주대 축제는 사실상 지역민과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놀이문화도 필요하지만, 학술과 문화적 요소를 두루 다루면서 소모적인 행사를 뛰어넘는 성과물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할 때가 됐다.

아라대동제는 대학문화와 지역문화의 접점이다. 가령 사회 전반적으로 ‘가벼운 문화’가 판을 친다면 대동제는 오히려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 내면을 깊이 하는 성찰과 진지한 문화의 배양이 사명이 되기도 한다. 아라대동제가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제주문화의 생산기지가 되려면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럴 때 대동제는 진정한 대동의 의미 확산과 함께 진한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다.

삶 속에서 접하는 지리학

한 희 주
지리교육전공 3



지리교육과 학생으로서 현재 지리학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느낀다. 한때, 미국도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같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리적 문맹이 단순히 교육차원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곧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지리교육 부흥의 동기가 됐다. 이는 우리나라 지리교육도 부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줌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지리학의 문제점을 시사해준다.

미국의 지리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국의 지리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첫째로 지리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지리교육과정은 입지, 장소, 장소들 내의 관련성, 이동 그리고 지역의 5개 근본주제를 만들어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가지의 핵심 아이디어가 만들어져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지리가 광범위한 학문이라 주장하면서 ‘지리를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우나?’라는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답변하지 못한다. 지리교육과정에도 어떤 것을 배우는지 간단명료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리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지식 습득에 그치게 된다는 점이다. 음식이나 의상, 거주하는 형태 모두 지리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교

육에서는 실생활과 ‘지리’가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은 단순히 암기를 요구하는 탐구 과목 중 하나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실생활의 어떤 부분이 지리와 관련 있는지 알지 못한다. 즉, 지리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삶 속으로의 적용’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리교육은 적어도 지리가 무엇인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고력을 길러주고자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리’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우리 생활에서 지리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매일 가는 학교나 집이 그곳에 위치해 있는 이유, 심지어 학교와 집으로 가는 길조차도 모두 지리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학문보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학문이 지리이며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행해진다면, 지리교육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지리학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5월 11일 입양의 날, 사회적 관심 필요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가족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날이 유난히 5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주로 5월 어린이날과 8월 어버이날이 가정의 날을 대표하는 날들이다.

그런데 매년 5월 11일로 의미 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로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3월 23일 ‘시·도 입양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아이들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결정했다.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제도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주최되고 있다. 그러나 고아들은 어린이날이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놀러 가는 평범한 일을 꿈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일수록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고 싶은 생각

이 든다.

하지만 입양의 날은 어린이날처럼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여러 지역에서는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그 수도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입양의 날을 맞아 제주 입양기관인 흥익아동복지센터에서 캠페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충분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

입양에 대한 관심이 꼭 입양을 생각하는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입양아들이 왜 입양아가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아 아동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아동인권보호 차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입양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소중함을 느껴볼 ‘가족’이라는 존재도 주어져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5월은 이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양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다.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사이에 대문이 까맣게 칠해진 동아리방이 있다. 치킨 동아리, 본적 사전제 홍보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흑인음악 동아리 ‘블랙다이아몬드’이다. 아바 오늘 꽃꽂은 ‘스웁’이 넘칠 것 같다.(스웁 swag, 간지난다, 느낌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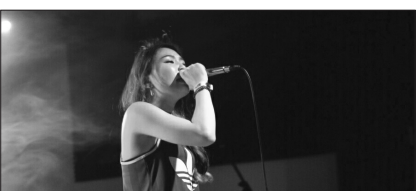
◇‘피부도 까맣고 음악도 까맣지만 해치지 않아요!’

블랙다이아몬드 일명 ‘블다’. 블다는 흑인을 상징하는 ‘BLACK’과 부를 상징하는 ‘DIAMOND’의 의미로 초대 회장 윤운호(a.k.a BigD)와 부회장 문성중(a.k.a구두자)에 의해 회원수 22명의 동아리로 출범했다. ‘블랙다이아몬드’라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름 때문에 고초를 겪은 적도 많다. 댄스 동아리나 밴드 동아리로 착각해 문을 두드린 경우가 많다는 것. 후문에 따르면 댄스 동아리인 줄 알고 입부를 했다가 힙합의 신이 되어 동아리를 졸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아직은 쇼미더머니 버프

블랙다이아몬드는 ‘쇼미더머니’와 ‘엔프리티 랩스타’가 흥행한 이후 작년 대비회원 수가 10~20%가량 늘었다(작년 총원 30~40명 기준). Mnet에서 내리는 단비가 바다 건너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까지

what’s up! 〈요즘 어때〉



블랙다이아몬드 회원인 윤보미씨가 시청 인디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내린 셈이다. 그래서인지 동아리방 문에는 쇼미더머니 포스터가 붙어있다.

◇힙합 동아리보다 문화 동아리

블랙다이아몬드는 장르를 두고 만든 동아리가 아니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아리이다. 그래서 제주의 동아리 문화와 공연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동아리의 목표이다. 흥건의(원예환경학과 3) 블랙다이아몬드 회장은 “블랙다이아몬드는 R & B, 레게를 취미로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가사도 쓰고 공연도 하는 곳’이라며 “열정이 가득한 분들을 언제든지 문의해주시 바랍니다”고 말했다.

만약 제주대의 제2의 비와이나 크리쉬 같은 힙합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면 블랙다이아몬드 동아리방 문에 소심하게 붙어있는 ‘라면 먹고가’라는 명패를 핑계로 동아리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김민경 기자

>>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 - 제주 도라에몽 100 비밀도구전 관람기

“너의 꿈을 이뤄 줄게 난 도라에몽”

어린시절 우리의 친구 도라에몽과 함께 동심 찾아
다양한 피규어, 작가 콘티, 만화책 등 즐길거리 많아

파란 몸, 동그란 얼굴, 2등신의 앙증맞은 신체사이즈를 가진 너구리로 오해받는 22세기에서 온 고양이형 로봇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도라에몽이다. 도라에몽은 일본의 만화가 후지코 F 후지오의 작품으로 1969년부터 일본의 학습지 네 권에서 연재를 시작했다. 에피소드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단행본 45권이 출판됐으며 2010년 기준 전 세계 누적 판매 부수 2억1000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1979년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1000편 이상의 에피소드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동글동글 찌리몽땅 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노진구(일본명 노비타)의 불행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후손인 노장구가 보낸 로봇이다. 진구는 같은 반 친구인 통통이(타케시, 별명 자이안)에게 늘 맞기 일쑤고 비밀이(스네오)에게 놀림을 당한다. 진구는 공부도 못하고 낮잠자기를 좋아하는 평범하고도 약간은 모자란 소년이다. 그런 진구를 위해 도라에몽은 배에 달린 4차원 주머니에서 비밀도구를 꺼내 도와주곤 한다. 만화의 내용은 “도라에몽~”하고 울며 나타난 진구가 “통통이와 비밀이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패턴이 클리셰로서 정립돼 있다. 그 외에 짝사랑하는 이슬이(시즈카)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구분투하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쯤에서 도라에몽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자. 파란색은 도라에몽의 상징과도 같은 색깔이다. 그런데 도라에몽이 왜 파란색일까. 그리고 고양이 로봇인데 왜 귀가 없을까. 배

우 심형탁처럼 도라에몽의 열혈 팬이 아닌 이상 ‘도라에몽은 원래 파란색 아니었어? 도라에몽이 고양이 로봇이었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다. 도라에몽은 원래 노란색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낯잡을 자던 중 로봇 쥐가 귀를 갇아 먹게 되고 수술을 받지만 의사는 도라에몽의 귀를 떼어내 버린다. 귀가 없어진 도라에몽은 3일 내내 울기만 하는데 결국 노란 페인트 칠이 벗겨져 파란색이 됐다고 한다. 거기다 목까지 쉬어 버려 지금의 절절한 목소리가 됐다. 그 이후 도라에몽은 쥐만 보면 기겁을 한다고. 고양이 로봇임에도 쥐를 유독 무서워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 도라에몽에 관한 재밌는 사실. 도라에몽은 프로필 상 키, 머리둘레, 가슴둘레, 몸무게 모두 129.3이다. 작가가 도라에몽의 신체 사이즈를 129.3으로 설정한 이유는 도라에몽 연재 당시 일본 초등학교의 평균 신장이 129.3cm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라에몽과 타임머신 타고

잃어버린 동심을 찾기 위해 어린시절 친구 도라에몽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바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미니랜드 특별전시장에 마련된 도라에몽 비밀도구 전시회이다. 도라에몽처럼 파란 하늘을 기대했지만 회색빛 구름에 뒤덮인 하늘은 비를 머금은 구름들로 가득했다. 미니랜드 주차장 한켠에 마련돼 있는 특별 전시장은 숫자 100 모양의 안경을 들고 있는 커다란 도라에몽의 얼굴 옆으로 여러 비밀도구들이 그려져 있었다. ‘너의 꿈을 이루어 줄게. 난 도라에

몽!’이라고 쓰인 문구가 마음을 벅차게 한다. 친구의 수호천사이자 친구인 도라에몽은 어린시절 우리에게도 곁을 지켜주던 친구가 돼 줬고 어른이 된 옛 친구에게 여전히 ‘우리 친구’라며 손을 내민다. 두근거림과 몽글한 마음으로 도라에몽의 작고 동그란 손을 잡아본다. 체구는 작지만 마음은 전 세계를 아우를만큼 넓은 친구의 손을 잡고 타임머신을 올라 타 어린시절의 천방지축 꼬마로 돌아가본다.

◇모두의 친구 도라에몽

전시장 내부에는 다양한 도라에몽 피규어, 작가의 제작 콘티가 전시돼 있고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평면과 입체로 다양하게 도라에몽을 만날 수 있다. 또 도라에몽 덕후 일명 ‘심타쿠’로 불리는 배우 심형탁의 도라에몽 애장품이 전시돼 있어 전시관을 구경하며 그의 도라에몽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이곳에서 찍었던 사진과 그의 애장품들을 보여 도라에몽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옛 친구에게도 여전히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 도라에몽은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닌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여전히 사랑스럽고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친구인 것이다. 벽면에는 이곳을 방문한 어린친구들과 어른친구들의 도라에몽 그림으로 도배돼 있다. 그림들에서 도라에몽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며 아직도 도라에몽을 추억하고 있고 여전히 인기 있는 캐릭터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림이 그려진 벽 옆으로는 친구의 방이 마련돼 있다. 책상과 도라에몽이 자는 2층으로 된 옷장. 그리고 방 가운데에는 친구가 웃으며 앉아있다. 방으로 들어가 친구와 나란히 앉은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도라에몽 애니메이션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야외 전시장으로 나가면 100개의 비밀도구를 하나씩 들고 있는 도라에몽들로 가득하다. 100개의 도라에몽을 보고 있으면 순간 어린아이가 되어 도라에몽 속을 뛰어다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곳에 있으면 누구든 어린아이가 되고 만다. 물건을 과거와 미래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타임보자기, 복사해주는 식빵,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램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어디로든 문까지. 애니메이션 속 도라에몽의 탐나는 비밀도구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또 타고고 싶은 대나무 헬리콥터를 머리 위에 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까지 설치돼 있어 사진을 찍는 즐거움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핸드폰 속 앨범에 도라에몽 사진이 한가득 담겨 있을 것이다.

◇“난 네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을 좋겠네
하늘 만큼 땅 만큼 너무나 많은 꿈들
모두 모두 모두 다 이루게 해준대네
신비한 주머니로 이루게 해준대네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서
좋아 대나무 헬리콥터
앙앙앙 난 니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앙앙앙 난 니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전시 관람 내내 스피커에서 들린 도라에몽 주제곡이다. 어린이들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노래만 들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전염되는 듯 했다. 도라에몽과 함께한 하루,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 도라에몽의 웃는 얼굴에 이곳에 있는 모두가 행복을 느꼈다. 도라에몽과 함께하는 동안 정말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잃어버린 동심을 찾은 기분이 들었다. 비록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



숫자 100 모양 안경을 쓴 도라에몽(왼쪽). 친구의 방 가상체험 공간(오른쪽). 비밀도구 100개를 손에 쥐고 있는 다양한 표정의 도라에몽들(위). 어디로든 문으로 들어가면 100개의 도라에몽들이 기다리고 있다(아래).

시 현실의 자신과 마주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 도라에몽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까. 전시장에 들어설 때 “너의 꿈을 이

루어 줄게”라고 도라에몽이 말했다. 전시장을 나서며 우리는 도라에몽에게 이렇게 답할 것이다. “네가 나의 꿈인걸. 난 네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김정희 기자

>> 제주의 맛과 멋...이중섭거리 플리마켓 탐방기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문화의 장...이중섭거리

예술가들이 상인으로 변모... 일반적 시장과는 달라
시장의 규모 매우 열세, 한계로 지적

젊은 층들이 북적거리는 서울의 홍대 앞, 경리단길과 같은 동네에서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플리마켓이 들어선다. 본래 플리마켓이란 중고 물품을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벼룩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의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거리의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며 자기자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내놓기도 하는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도 이런 플리마켓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기자가 방문한 곳은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 앞에 위치한 이중섭 거리의 플리마켓이다.

◇일반적인 시장과는 조금은 달랐다

농산물과 먹거리만 파는 시장을 생각했기 때문일까? 돌아오는 휴일마다 열리는 이 플리마켓은 일반적인 곳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예술인들이 거리로 나와 본인들의 장기를 선보이는 듯 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빵, 쿠키 등 먹거리를 비롯해 악세서리, 천연염색을 한 갈옷 등 잡화들 팔기도 했고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곳도 있었다.

◇자유로움을 느꼈다

길 한복판에서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부르는 중년의 남성 두명이 눈에 들어왔다. 긴 수업을 지닌 외모를 통해 미묘한 포스를 뽐내고 있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옛 트로트부터 팝까지 장르를 불문했다. 그들은 본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심취해 즐거워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상인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거 얼마예요?”라고 한국말로 질문을 하면 “칠천원이에요”라며 또박또박 대답을 하곤 했다. 그 외국인이 보인 선한 미소 속에서 일상의 치열한 경쟁이 아닌 여유로움을 볼 수 있었다.

◇서귀포 문화예술 디자인 시장

이중섭거리의 옆길에는 아트마켓으로 알

이 주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판매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플리마켓의 한 상인은 “최근에 육지에서 내려온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모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다는 한계점 때문에 독특한 시장이라는 점을 느끼기도 전에 끝이 난 것이다.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플리마켓이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이래 기자



주말마다 열리는 이중섭거리의 플리마켓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독특한 디자인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있다(위). 예술가들이 거리로 나와 본인들의 장기를 뽐내고 있다(아래).

